

## 한국 대표 스타 디자이너 탄생 예고: 차세대디자인리더

# 2004

### 디자인진흥원사

- GD 선정제 제2회 확대시행
- 「Designdb」 폐간
- 차세대디자인리더 선정사업 시행
- 중소기업디자인컨설팅 지원 실시(디자인홀더 운영)
- 디자인체험관(DEX) 개관
- 『디자인코리아』 베이징 개최
- 재학생현장실습 학점인정제 시범 실시

### 한국 디자인사

- 현대카드 전용 글꼴 발표
- 리움미술관 개관
- 쌀지작 완공
- 흥의대학교 디지털미디어 디자인학과 신설
- 삼성, 미국 IDEA상 최다수상 기업 선정
- 어도비 인디자인 한글판 발표
- 디스트릭트 창립
- 디자인여성학회 창립

### 한국 사회사

- KTX 영업운행 개시
- 서울광장 개장
-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선제 본격 도입
- 카트라이더 베타서비스

지식기반 산업사회와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디자인은 단순히 제품디자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생산, 마케팅, 전반적인 경영까지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창조적인 디자인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개개인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시대를 앞서가는 세계적인 스타 디자이너는 국가 경쟁력과 세계 산업, 경제계의 가치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기반 산업을 선도하는 해외 디자인 선진국은 20세기 초부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온 세계적인 스타 디자이너를 배출해왔다.

KIDP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선정한 ‘차세대디자인리더’는 이러한 스타 디자이너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성장을 도우려는 시도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배출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를 제고하고, 한국 디자인의 글로벌 디자인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산업 가치 창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속에서 한국 디자인의 경쟁력을 넓히고 국가 경쟁 속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약 8년간 총 152명의 디자이너가 선정되었고, 이들은 현재 미국,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일본 등 세계 16개

국에서 주로 활동하며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12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성과를 집계한 결과, 밀라노 디자인박람회 등 해외 디자인박람회 출품 건수만 556건, 해외 유명 디자인상 수상은 271건(84명), 독일의 ‘iF 디자인어워드’, ‘레드닷’,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등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 수상은 77건(29명)에 달했다. 해외 주요 언론 보도는 210건, 저작재산권 등록은 34건, 출원이 94건이었다. 2012년 수치이므로 현재는 더욱 그 성과가 클 것으로 추산된다.<sup>61</sup> 대표적 인물로는 1기 이돈태 삼성전자 디자인센터장, ‘모두를 위한 디자인 개념의 세면대’가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실렸던 7기 김창덕 디자이너, 영국에서 디자인내러티브를 설립하고 2010년 영국 디자인뮤지엄이 선정한 올해의 디자인상을 수상한 11기 최민규 디자이너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4기 이석우 디자이너는 평창동계올림픽 메달을 디자인하여 화제가 되었고 10기 정성모, 11기 윤성문 디자이너는 2019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 큐레이터로 활약하였다.

KIDP는 기존 차세대디자인리더 출신들로 구성된 모임을 결성하거나 세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온라인 커뮤니티(세계한인디자이너네트워크, KDNEW)를 개설한 가운데, 2018년에는 차세대디자인리더 홈커밍데이를 가졌으며 디자인코리아 잡페어와 연계하여 해외 취업 상담과 세미나 등에 참가하여 후배 디자이너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2012년 완료된 차세대디자인리더 선정사업은 여전히 디자이너라는 인적 능력이 요구되는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부터 글로벌 인턴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된다.



차세대디자인리더 홈커밍데이(2018)